

한국불교의식의 삼단분단법 (韓國佛教儀式的 三段分壇法)

文化財專門委員 洪潤植

1. 序言
2. 佛教儀式 分壇法の 形態
3. 三段分壇의 構造
4. 韓國佛教儀式 分壇의 性格
5. 結論

1. 서언(序言)

한국불교(韓國佛教)의 전통적 성격(傳統的 性格)을 보면 각종(各種) 다양(多樣)한 요소(要素)를 내포(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흔히 통불교적(通佛敎的) 성격(性格)이라고 하는데 통불교(通佛敎)란 종파불교(宗派佛敎)에 대한 통합적(統合的)인 불교(佛敎)란 의미보다는 여러 종파적(宗派的) 요소(要素)를 모두 함께 지닌 불교(佛敎)란 뜻으로 해석(解釋)되어지는 것이다. 즉(卽), 신앙적(信仰的)인 면(面)에서 보면 화엄신앙(華嚴信仰) 법화신앙(法花信仰) 정토신앙(征討信仰) 미륵신앙(彌勒信仰) 밀교신앙(密敎信仰) 관음신앙(觀音信仰) 약사신앙(藥師信仰)등의 다양(多樣)한 요소(要素)가 있고 수행(修行)의 면(面)에서 보면 좌선(坐禪) 염불(念佛) 송주등(誦呪等)의 다양성(多樣性)을 찾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불교(韓國佛敎)의 다른 일면(一面)은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십왕단(十王壇等)을 사원(寺院)에 둔 미신적(迷信的) 무속적(巫俗的) 종교(宗敎)란 점(點)도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성격(性格)을 살필때 간과(看過)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以上)과 같이 보면 한국불교(韓國佛敎)는 동일사원(同一寺院)에 수(數) 많은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을 모시게 되고 따라서 다양(多樣)한 수행(修行)의 방법(方法)이 있게 되고 갖가지 신앙행위(信仰行爲)가 행하여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卽) 이를 얼핏 보면 다신교적(多神敎的) 불교(佛敎)라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한국불교(韓國佛敎)의 내용을 좀더 자세(仔細)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의 질서(秩序)가 있고 그와 같은 질서(秩序)를 통(通)하여 1에서 다(多)로 분해(分解)하고 다(多)에서 1로 재통합(再痛合)하는 하나의 구조(構造)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한국불교(韓國佛敎)의 내용(內容)을 분석(分析)하자면 우선 그 역사적(歷史的)인 형성과정(形成過程)과 그에 따른 교의(敎義)의 연구(研究)가 있어야 함은 두말 할 여지(餘地)가 없으나 본고(本稿)에서는 주(主)로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신앙(信仰)과 그 행위적(行爲的) 표현(表現)으로서의 의례(儀禮)의 형태(形態)가 지니는 구조적(構造的) 성격(性格)을 통(通)하여 한국불교신앙(韓國佛敎信仰)의 성격(性格)과 그에 따른 불교(佛敎)의 문화력(文化力)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살펴 볼까 한다.

2. 불교의식(佛敎儀式) 분단법(分壇法)의 형태(形態)

한국사원(韓國寺院)은 어디를 가든지 불단(佛壇)이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의 3단(壇)으로 나누어져 있고 조석(朝夕) 예불(禮佛)이나 정기적(定期的) 비정기적(非定期的) 각종법회(各種法會)에서 이와같은 각(各) 3단(壇)에 대한 의식행위(衣食行爲)가 각각(各各) 행(行)하여지고 있음에 주목(注目)을 끌게 된다. 물론 여기 상단(上壇)을 제외하고는 중단(中壇) 하단(下壇)은 불단(佛壇)이라 칭할 수 없는 것이나 일반적인 신앙행위(信仰行爲)가 이와같은 3단(壇)을 대상(對象)으로 행(行)하여지고 있다는데 하나의 특이성(特異性)을 발견(發見)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먼저 3단(壇)에 대(對)한 내용(內容)부터 파악(把握)해 보기로 하자.

① 상단(上壇) - 상단(上壇)이란 불보살단(佛菩薩壇)으로 모든 사원(寺院)에 있어 중심단(中心壇)이 된다. 법당(法堂)의 위치(位置)에서 보면 가장 중앙(中央)에 위치(位置)하고 주존불(主尊佛)이나 또한 주존불(主尊佛)과 함께 좌우보처(左右補處)의 보살상(菩薩像)을 봉안(奉安)한다. 그리고 모든 의식(儀式)은 이 상단(上壇)을 중심(中心)으로 행(行)하여 진다.

② 중단(中壇) - 중단(中壇)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신중단(神衆壇)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대개 상단(上壇)인 불보살단(佛菩薩壇)의 좌측(左側)에 신중정화(神衆幀畵)를 봉안(奉安)하여 설치(設置)하고 있는데 상단의식(上壇儀式) 다음에 중단의식(中壇儀式)을 행(行)하게 된다.¹⁾

③ 하단(下壇) - 하단(下壇)은 영단(靈壇)이라고도 하며 주(主)로 영가(靈駕)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그 중앙(中央)에 지장(地藏)보살(菩薩)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하단의식(下壇儀式)은 상(上)·중단(中壇)에서는 조석예불시(潮汐禮佛時) 상용의식(常用儀式)으로 행(行)하는데 반(反)해 특정(特定)한 날이 아니면 일용의식(日用儀式)은 행(行)하지 않는다.

이상(以上)에서는 상용의식(常用儀式)을 중심(中心)으로 설치(設置)된 불보살단(佛菩薩壇) 신중단(神衆壇) 영단(靈壇)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같은 3단(壇) 분단법(分段法)은 불단(佛壇)을 상설(常設)한데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불교의식(各種佛敎儀式)의 구성절차(構成節次)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즉 범음집(梵音集) 일판집(一判集) 석문의절(釋門儀節)등(等)의 각종(各種) 의식문(儀式文)을 보면 각기(各己) 분단법(分段法)이 명기(明記)되어있고 또한 그 분단법(分段法)에 따라 의식(儀式)절차(節次)가 행(行)해짐을 살필 수 있게 된다.²⁾

우선 석문의절(釋門儀節)의 예수제(預修齋)에서 분단규식(分壇規式)의 예(例)를 살펴 보기로 하자.³⁾

③ 예수제(預修齋) 분단규식(分壇規式)

1. 삼신불(三神佛).....상단(上壇)
2. 자지장지도명무독(自地藏至道明無毒).....중단(中壇)
3. 범왕제석사천왕(梵天帝釋四天王).....하단(下壇)

이상(以上) 삼단(三壇)은 예수제(預修齋)의 증명단(證明壇)이 된다

1. 명부십왕(冥府十王).....중상단(中上壇)
2. 자하판관지영저등(自夏判官至靈祇等).....중중단(中中壇)
3. 십왕안내권속(十王案內眷屬).....중하단(中下壇)

이상(以上) 삼단(三壇)은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에 있어 중단(中壇)

- 1. 별지조관단(別置曹官壇)..... 상
- 2. 사자단(使者壇)..... 중
- 3. 마구단(馬廐壇)..... 하

이상(以上)을 소위(所爲) 예수구단(預修九壇)이라 하는 것으로 이는 상·중·하의 삼단(三壇)을 다시 각각(各各), 상중하(上中下)의 삼단(三壇)으로 분단(分壇)한 형식(形式)을 취(取)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具體的)으로 이들 각단(各壇)의 위목(位目)을 살펴보면

1) . .

① 상상단 위목질(上上壇 位目秩)

- 남무청정법신사로차나불(南舞淸淨法身思盧遮那佛)
- 남무원만보신노함나불(南舞圓滿報身盧舍那佛)
- 남무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南舞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② 상중단 위목질(上中壇 位目秩)

- 본존지장보살(本尊地藏菩薩), 용수보살(龍樹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상비보살(常悲菩薩) 타나니보살(陀羅尼菩薩)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
- 비노차나화신천조(毘盧遮那化身千曹) 노사나응신천조(盧舍羅應身千曹)
- 동법신천조(同法身千曹) 대지노사나화신천조(大指盧舍羅化身千曹)
- 미륵화신대산부군천조(彌勒化身泰山府君千曹)
- 남방노인지장화신천조(南方老人地藏化身千曹)
- 도명존자(道明尊者) · 무독귀왕(無毒鬼王)

③ 상하단 위목질(上下壇 位目秩)

- 대범천왕(大梵天王) · 제석천왕(帝釋天王) · 사방천왕(四方天王)

2) 중삼단(中三壇)

① 상단(上壇)

- 제1진광대왕(第一秦廣大王) 제2초강대왕(第二初江大王) 제3송제대왕(第三宋帝大王)
- 제45관대왕(第四五官大王) 제5염다대왕(第五閻多大王) 제6변성대왕(第六變成大王)
- 제7태산대왕(第七泰山大王) 제8평등대왕(第八平等大王) 제9도시대왕(第九都市大王) 제15도전륜대왕(第十五道前輪大王)

② 중단(中壇)

- 제1판관(第一判官)에서 제2십육(第二十六), 유판관(庾判官)까지의 20육판관(二十六判官)
-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중원갈장군(中元葛將軍),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의 삼원장군(三元將軍)
- 제1무독귀왕(第一無毒鬼王)부터 제37남안귀(第三十七南安鬼)까지의 37위귀왕(三十七位鬼王)
- 선부동자(善簿童子) 악부동자(惡簿童子) 감제사자(監濟使者) 직부사자(直附使者)등의 각종사자(各種使者)와 호법선신(護法善神) 토지영신(土地靈神)등

③ 하단(下壇)

- 명부십왕(冥府十王)의 판관(判官) 귀왕(鬼王) 동자(童子) 사자(死者)등(等) 각각(各各)의 권속(眷屬)

3) 하삼단(下三壇)

조관단(曹官壇) 사자단(使者壇) 마구단(馬廐壇)

이상(以上) 예수제(預修濟)의 분단규식(分壇規式)에서 보면 상삼단(上三壇)은 증명단(證明壇)으로 직접적(直接的)인 신앙(信仰)의 대중(大衆)이 아니고 중삼단(中三壇)이 중심단(中心壇)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수제(預修齋)란 죽은 후(後)에 행(行)할 불사(佛事)를 미리 행하여 공덕(功德)을 쌓으므로 인(因)하여 죽은 후(後)에 명부십왕(冥府十王)의 번판(番判)에서 지옥(地獄)에 떨어지지 않도록한다는 도교(道敎)에 의(依)한 십왕신앙(十王信仰)에 기인(起因)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십왕신앙(十王信仰)에 증명단(證明壇)인 불단(佛壇)을 설치(設置)하여 도불습합신앙(道佛習合信仰)으로 전개(展開)시키고 있다. 이를 다시 예수구단분단법(預修九壇分壇法)에서 보면 십왕(十王)은 위로는 어른을 모시고 아래로는 각계층(各階層)의 권속(眷屬)을 거느리고 사파(娑婆)중생(衆生)의 공양(供養)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을 모심에 있어서도 위계(位階)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할뿐 아니라 권속(眷屬)을 거느림에 있어서도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하다. 즉(卽) 위로 상삼단(上三壇)은 상(上)에 불단(佛壇) 중(中)에 보살단(菩薩壇) 하(下)에 호법선신중단(護法善神衆壇)의 질서(秩序)가 있고 아래로 불교(佛敎)의식(儀式)의 분단법(分壇法)은 하나의 위계질서(位階秩序)라고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한편 이와같은 분단법(分壇法)은 불교(佛敎)의 토착화과정(土着化過程)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즉(卽) 예(例)컨대 불교(佛敎) 이외의 모든 토속(土俗)신앙(信仰)을 불교적(佛敎的)으로 수용(受容)하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이같은 삼단법(分壇法)은 많이 적용(適用)되어 진다. 위에서 든 예수제(預修濟)의 삼삼단(三三壇)의 분단법도 그 좋은 예(例)의 하나이지만 산신(山神) 칠성(七星) 제석(帝釋) 귀왕(龜王)신앙(信仰)등(等)의 불교적(佛敎的)수용(受容)과정(過程)이 신앙적(信仰的)인 면(面)에서 보면 모두 이같은 형식(形式)을 취(取)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⁴⁾

한편 전기(前記) 한바와 같이 한국(韓國)사원(寺院)의 모든 불당(佛堂)은 단일(單一)불당(佛堂)일 경우 같은 불당(佛堂)안에 신중단(神中壇) 영단(靈壇)등(等)의 삼단(三壇)을 설치(設置)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現象)은 한국(韓國)사원(寺院)의 가람(伽藍)배치(配置)와도 일련(一連)의 관련성(關聯性)을 갖고 있는것 같아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전통적(傳統的)인 한국가람(韓國伽藍)의 구성내용(構成內容)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판집(一判集)⁵⁾에 의하면 대찰사(大刹寺)의 가람(伽藍)내용(內容)의 한 예(例)를 다음과 같이 전(傳)하고 있다.

1. 비로전(毘盧殿)·차(次) 영산전(靈山殿)·동(東) 약사전(藥師殿) 서(西) 극락전(極樂殿) 차(次) 설법전(說法殿) 3. 조사전(祖師殿) 십육전(十六殿) 오백나한전(五百羅漢殿) 미륵전(彌勒殿) 차(次) 수륙사시제불보살(水陸舍是諸佛菩薩) 강림발고여송처(降臨發苦與?處) 차(次) 관음전(觀音殿), 지장전(地藏殿) 동(東) 승당(僧堂) 서(西) 신당(神堂) 유리(琉璃)계단(戒壇)

이상(以上)의 가람(伽藍)내용(內容)에서 그 배치상(配置相)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체(大體)로 비로전(비로전)과 영산전(靈山殿)을 중심(中心)으로 동(東)에 약사(藥師)전(殿), 서(西)에 극락(極樂)전(殿)등 대체적(大體的)인 질서(秩序)의 양상(樣相)을 살필 수 있는바 이와같은 가람(伽藍)의 형성(形成)도 불교(佛敎)의식(儀式)의 삼단(三壇) 분단법

(分壇法)과 의식(儀式)과의 관계성(關係性)에서 고찰(考察)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삼단분단(三段分壇)의 구조(構造)

삼단(三壇)이란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의 명칭(名稱)이 일러 주듯 하나의 계층(階層)을 기준(基準)으로 분단(分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상단(上壇)은 최고(最高)경지(境地)인 불단(佛壇) 중단(中壇)은 천인(天人)의 경지(境地)인 호법(護法)선신(善神)으로서의 신중단(神中壇) 하단(下壇)은 영단(靈壇) 그리고 예수제(預修濟)와 같이 삼(三)·삼단(三壇)으로 분단(分壇)한 경우에도 증명단(證明壇)으로서의 상삼단중(上三壇中) 상단(上壇)은 불단(佛壇) 중단(中壇)은 보살(菩薩)단(壇) 하단(下壇)은 제석(帝釋) 등(等)의 신중단(神中壇) 중(中)삼단(三壇)에서는 상단(上壇)에 십왕단(十王壇) 중단(中壇)에 십왕(十王)의 상위(上位)권속(眷屬)인 명판관(名判官) 하단(下壇)에 십왕(十王)의 하위권속(下位眷屬)인 각(各)판관(判官)의 권속(眷屬)으로서의 십왕안내권속(十王案內眷屬) 그리고 하삼단(下三壇)은 십왕(十王)의 관계권속(關係眷屬)으로서의 조판단(曹官壇)·사자단(使者壇)·마구단등(馬廐壇等)으로 분단(分壇)하고 있음은 계층(階層)에 따라 분단(分壇)한 위계질서(位階秩序)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이와같은 위계질서(位階秩序)는 단순(單純)한 상하관계(上下關係)의 질서(秩序)가 아니라 상호인연관계(相互因緣關係)의 관계성(關係性)임을 알게 된다. 즉 명부전(冥府殿)의 의식(冥府殿儀式)의 한 예(例)에서 분단법(分壇法)을 보면

상단(上壇)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지장원찬이십삼존제위여래불(地藏源讚二十三尊諸位如來佛)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유명교주(幽冥教主) 지장보살마사살(地藏菩薩摩訶薩)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좌우보처(左右補處)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
지장대성위신력(地藏大聖威神力) 항하소겁설난지(恒河沙劫難盡)
견문침례일념간(見聞瞻禮一念間) 이익인천무량사(利益人天無量事)
고아일심귀명정례(故我一心歸命頂禮)

중단(中壇)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풍도대제(酆都大帝) 명부십왕중(冥府十王衆)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태산부군(泰山府君) 판관귀왕중(判官鬼王衆)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장군동자사자(將軍童子使者) 졸사아방등중(卒使阿旁等衆)
제성자풍유불호(諸聖慈風誰不好) 명왕원해최난궁(冥王原海最難窮)
오통신속심난측(五通神速沈難測) 명찰인간순식중(明察人間瞬息中)
고아일심귀명정례(故我一心歸命頂禮)

명부전(冥府殿)이란 십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소위(所謂) 명부십왕(冥府十王)을 봉안(奉安)한 십왕신앙(十王信仰)의 전각(殿閣)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십왕신앙(十王信仰)이 불교불교신앙화(佛敎信仰化)하면서 명부계(冥府界)와 관계(關係)있는 즉(卽) 지옥중생(地獄衆生) 구제(救濟)의 대원보살(大原菩薩)인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상위(上位)에 둔 관계성(關係性)을 가지면서 명부전(冥府殿)을 사원(寺院)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같은 관계성(關係性)은 각종(各種) 불교양식(佛敎樣式)의 청사(請詞)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 예(例)를 몇가지 들어보면

① 미륵청(彌勒請)

- 남무극락도사아미타불(南舞極樂導師阿彌陀佛)
- 남무좌보처관세음보살(南舞左補處觀世音菩薩)
- 남무우보처대세지보살(南舞右補處大勢至菩薩)

② 약사(藥師)청(請)

- 남무동방약사유리광불(南舞東方藥師琉璃光佛)
- 남무좌보처 일광편조보살(南舞左補處 日光遍照菩薩)
- 남무우보처 월광편조보살(南舞右補處 月光遍照菩薩)

이는 소위(所謂) 주불(主佛)과 보처불(補處佛)의 관계(關係)이겠으나 일판집(一判集)에 의하면 주불(主佛)과 보처(補處)간(間)의 관계(關係)성(性)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다.

『법당삼간 즉주불일존표중도 좌우보처개보살 위상표진속이체운운……안불소불일불당이일법당자…… 오간 즉삼여래사보살개립 칠간 즉오여래원광보살 구간 즉칠여래팔대보살』

『法堂三間 卽主佛一尊表中道 左右補處皆菩薩 立象表眞俗二諦云云……安佛所佛日佛堂而日法堂者…… 五間 卽三如來四菩薩皆立 七間 卽五如來原光菩薩 九間 卽七如來八大菩薩』

이에 의(依)하면 여래(如來)는 양극(兩極)을 여원 절대자(絶對者)로서의 표상(表象)이며 좌우보처(左右補處)는 진체(眞諦)와 속체(俗諦)를 연결(連結)하는 즉(卽) 속체(俗諦)에서 진체(眞諦)에 들게 하는 방편(方便)의 표상(表象)임을 알게 하거니와 이와같은 관계성(關係性)은 주불(主佛)과 좌우보살간(左右菩薩間)의 관계(官階)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其他)의 토속적(土俗的) 신앙(信仰)의 불교적(佛敎的) 수용(受容)에서 얼마든지 형성(形成)될 수 있는 성질(性質)의 것이다. 그러나 다만 주불(主佛)과 일반적(一般的)인 토속신앙(土俗信仰)의 대상(對象)과의 관계(關係)는 주불(主佛)과 좌우보처(左右補處)로서의 형식(形式)을 취(取)하는 것이 아니라 주불(主佛)을 상단(上壇)으로 기타(其他)의 신앙대상(信仰對象)은 중단(中壇)이나 하단(下壇)으로 배(配)한데 형식적(形式的)인 차이(差異)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以上)은 주(主)로 삼단(三壇)의 분단(分壇)이 불(佛), 보살(菩薩) 천중(天衆) 그리고 십왕등(十王等)의 토속신앙적(土俗信仰的) 요소(要素)들의 인연관계(因緣關係)의 위계질서(位階秩序)란 면(面)에서 살펴 본 것이다. 다음은 삼단(三壇)의 형상적(形相的)인 면(面)에서 보다 구체적(具體的)인 면(面)을 고찰(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형상적(形相的)인 면(面)이라 상(上)·중(中)·하단(下壇)에 각각 불상(佛像) 보살상(菩薩像) 천중상(天衆像) 그리고 기타(其他)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그에 따른 각기(各己) 다른 양식(樣式)을 행(行)한다는 현상적(現象的)인 면(面)을 들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보다 기 이전(以前)의 불교(佛敎) 자체(自體)의 형상화(形象化)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와 같은 의식(儀式)의 분단법(分壇法)에 어떤 관련성(關聯性)을 갖는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불상점면록(佛像點眠錄)에 의(依)하면⁶⁾

『좌복이 진체지례 담연무형 범신지신 소연이상 담연무형고 포함범계소연이상고 편만태허

左伏以 眞體之禮 湛然無形 法身之信 蕭然離相 湛然無形故 包含法界蕭燃離想故 徧滿

太虛

기포법계이위형 마유근진지상호 적편태허이작체본무안이 지명언연 욱제 사계지미륵 구진방

既包法界以爲形 馬有根塵之相好 赤徧太虛而作體本無眼耳之名言然 愆濟 沙界之迷倫 救塵邦

지고난 내시현삼십이상 적장엄어팔십중호가위
之苦難 乃示現三十二相 赤莊嚴於八十種好可謂

삼신구사지성(三身具四智成)이라 하여 여래(如來)의 형상화(形象化)에 의거(依據)하여 진불(眞佛)에 통(通)하는 편법(便法)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불보살(佛菩薩)의 형상화(形象化)는 불보살(佛菩薩)을 살아있는 형상(形象)으로 접(接)함과 동시(同時)에 의식(儀式)에 있어 봉청(奉請) 봉송(奉送)의 패턴을 형성(形成)하게 한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儀式)에 있어 이와같은 봉청(奉請) 봉송(奉送)의 패턴 형성(形成)이 의식(儀式)단(壇) 설단(設壇)의 한 계기(契機)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교리(敎理)와의 관계(關契)에서 보면 즉증신상전사(竹中信常傳士)는 교리(敎理) 변천(變遷)의 삼단계(三段階)라 하여 다음과같이 밝히고 있다.⁷⁾

- ① 자득(自得) 자수(自修)의 수행(修行)의 계정(階程)
- ② 수행(修行)에 공덕(功德)을 인정(認定)하고 자타(自他)공수(共修)의 형식(形式)을 취(取)하는 계정(階程)
- ③ 그리하여 그 공덕(功德)을 타자(他者)에 회향(回向)하기 위(僞)하여 승려(僧侶)에 의뢰(依賴)하여 타수적(他修的)으로 추선공양(秋扇供養)하는 계정(階程)등을 들어 구체적(具體的)인 숭배대상(崇拜對象)을 부정(否定)하는 것으로부터 출발(出發)한 불교(佛敎)에 있어 수행(修行)의 도장(道場)에 본존(本尊)을 근청(謹請)하게 됨은 공덕(功德) 회향(回向) 추선(追善)공양(供養)이라고 하는 교리적(敎理的) 모티브를 동인(動因)으로 하며 대자적계정(對自的階程)에서 대타적계정(對他的階程)에의 이행(移行)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의식(韓國佛敎儀式)의 구조(構造)를 보면 이상(以上)과 같은 교리변천(敎理變遷)의 단계(段階)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되는데 즉 불교의례(佛敎儀禮) 본연(本然)의 공양(供養) 정례(頂禮) 참회(懺悔) 회향(回向) 발원(發源) 등(等)의 대자적(對自的)인 기본(基本)구조(構造)를 형상(形象)에 의탁(依託)하여 진불(眞佛)에 통(通)하게 하려는 편법(便法)과 민간신앙(民間信仰) 의례(儀禮)와의 습합과정(習合過程)에서 하나의 체계(體系)를 이루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와같은 신앙의례(信仰儀禮)의 체계(體系)는 불교(佛敎)가 민간신앙(民間信仰)과 습합(習合)해 가는 역사적(歷史的) 과정(科程)을 살필 수 있어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불교의례(佛敎儀禮)의 원초적(原初的) 의미(意味)는 자수적(自修的) 대(對) 자적(自的)인 것으로 이와같은 요소(要素)가 모든 불교의례(佛敎儀禮)의 근본(根本)이 되고 있는데⁸⁾ 이와같은 자수적(自修的) 근본의례(根本儀禮)의 공덕(功德)을 설계자(設齊者)에게 회향(回向)하는 형식(形式)을 취(取)함으로써 대타의례화(對他儀禮化)한다. 예(例)컨데 설계자(設齊者)의 요청(要請)에 의하여 공덕(功德)을 망인(亡人)에게 회향(回向)하면 추선공양의례(追善供養儀禮)가 되고 나아가 망인(亡人)에게 회향(回向)한다는 의미(意味)가 더욱 강조(強調)되고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의 습합(習合)에서 영단(靈壇)을 설(設)하고 또한 그에 따른 시식의(施食儀)로 전개(展開)되어 나간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

연(機緣)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소위(所謂) 설제자(設齋者)의 요청여가(要請如何)에 따라 신중단(神中壇) 산신단(山神壇) 제석단(帝釋壇) 칠성단(七星壇) 가친단(家親壇)등(等)이 회향(回向)의 형식(形式)에 따라 얼마든지 대자의례(對自儀禮)의 기본 구조(基本構造)에 삽입(插入)되어 대타의례(對他儀禮)로서의 체계(體系)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科程)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교(佛敎)가 민간신앙(民間信仰) 또는 수용자측(受容者側)의 요구(要求)에 수순(隨順)해가는 과정(科程)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불교의식(佛敎儀式)의 전개(展開)가 가능(可能)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特記)할 것은 이와같이 대자의례(對自儀禮)의 대타의례(對他儀禮)화(化) 과정(科程)에서 설단(設壇)되어지는 제단(諸壇)은 상(上)·중(中)·하(河)의 의식(儀式)분단법(分壇法)에서 보면 영단(靈壇)을 제외(除外)하고는 중단(中壇)에 배(配)한다는 특징(特徵)을 지닌다. 전기예수제(前期預修濟) 분단법규중(分壇法規中) 십왕단(十王壇)을 중단(中壇)으로 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例)의 하나이지만 기타(其他)의 제토속적신앙(諸土俗的信仰)의 대상(對象)도 그를 불교적(佛敎的)으로 수용(受容)할 때 이같은 양식(樣式)을 지닌다.

중례문(中禮文) 예수문(預修文) 범음집(梵音集) 및 기타(其他)의 의식집(儀式集) 이외(以外)의 불교의식(佛敎儀式) 삼단분단(三壇分壇)에 대한 문헌적(文獻的) 자료(資料)로서는 최고(最古)의 것으로 양촌집(陽村集)의 수록사조성기(水陸社造成記)⁹⁾에

『定基三壇位次 三月戊午 又幸觀之 至秋九月功乃告訖 三壇位層階三間 中下二壇 左右各有정기삼단위차 삼월술오 우행관지 지추구월공내고홀 삼단위층계삼간 중하이단 좌우각유

浴室三間 下壇左右別置 祖宗靈室 各八間 文廊廚庫 莫不備設

육실삼간 하단좌우별치 조종영실 각팔간 문랑주고 막불비설』

한 기록(記錄)이 있어 당시(當時)의 수록제(水陸齋儀)에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依)하면 하단(下壇)이 영단(靈壇)이었음을 전해 줄 뿐 상(上)·중단(中壇)에 대한 세세(細細)한 기록(紀錄)을 남겨 놓지 않아 그 성격(性格)을 알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연산일기(燕山日記)에서 전(傳)해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記錄)은 당시(當時) 수록제(水陸齋儀)의 삼단(三壇)의 성격(性格)을 분명(分明)히 해놓고 있다.

『수록지의 자조종조유지 기제창설상중불단 상공불 중공승 하단공왕후기설만막심』¹⁰⁾

水陸之議 自祖宗朝有之 其制創設上中不壇 上供佛 中供僧 下壇供王後其褻慢莫甚

이에 의(依)하면 상단(上壇)은 불단(佛壇) 중단(中壇)은 승단(僧團) 하단(下壇)은 영단(靈壇)이란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 중(中) 중단(中壇)의 중공승(中供僧)이란 해석(解釋)의 착오(錯誤)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오늘에 전하는 각종(各種) 수록문(水陸文)에 의하면 중단권공(中壇勸供)이 있는데 이 때의 중단위(中壇位)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소청중위(召請中位)

『일심봉청법계일절 사공천중 십팔천중 일월천중 제 성군중 오통선중 제금강중 팔부신중

一心奉請法界一切 四空天衆 十八天衆 日月天衆 諸 星君衆 五通仙衆 諸金剛衆 八部神衆

제용왕중 아수라중 대약차중 구반차중 나찰파중 귀자모중 대하왕중 대산왕중 유현신중 제

諸龍王衆 阿修羅衆 大藥叉衆 鳩槃次衆 羅刹波衆 鬼子母衆 大河王衆 大山王衆 幽顯神衆 諸

명왕중 태산부군 제 옥왕중 제판관중 제귀왕중 제장군중 제 졸이중
冥王衆 泰山附君 諸 獄王衆 諸判官衆 諸鬼王衆 諸將軍衆 諸 卒吏衆

그리고 이때의 공승(供僧)이란 상(上)·중(中)·하단(下壇)의 중단(中壇)으로서의 공승(供僧)이 아니라 삼단(三壇)의 불사(佛事)가 끝난 다음 승려(僧侶)가 대중(大衆)에게 법포시(法匍施)를 베푸는데 대(對)한 재포시(財佈施)의 형태(形態)를 지닌 공승(供僧)인 것이다. 이를 전통적(傳統的)인 의미(意味)로는 제(齊)라고 한다. 11)

한편 오늘날의 중단권공의식(中壇權供儀式)에서의 그 위목(位目)을 보면

지심정례공양 화엄회상 옥색제천중 지심정례공양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지심정례공양 화엄

志心頂禮供養 華嚴會上 愆色諸天衆 志心頂禮供養 華嚴會上 八部四王衆 志心頂禮供養 華嚴

회상 호법선신중
會上 護法善神衆

이에 의(依)하면 중단(中壇)이란 화엄회상(華嚴會上)의 모든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이 불사(佛事)의 대상(對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이란 석존(釋尊)성도(成道)이후(以後)의 자내증(自內證)¹²⁾인 것으로 인도적(人道的) 토속(土俗)신(神)의 불교(佛敎)에의 귀의(歸依)를 나타낸 것이다. 대승경전상(大乘經典上)의 신중(神衆)을 보면 이들은 대개 불법(佛法)을 듣고 환희(歡喜)하여 금후(今後)로는 불법(佛法)과 불법도장(佛法道場)을 보호(保護)하겠다고 서원(誓願)한 제신(諸神)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인도(印度) 토속신(土俗神)의 불교적(佛敎的) 수용(受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수용(受容)의 형태(形態)는 인도(印度)에서뿐만아니라 중국(中國) 혹은 한국(韓國)의 토속신(土俗神)을 불교적(佛敎的)으로 수용(受容)할때에도 같은 형태(形態)를 지닌다. 전술(前述)한 예수삼단분단중(預修三壇分壇中) 십왕단(十王壇)을 중단(中壇)으로 배(配)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例)의 하나이지만 여기서 소위(所謂) 중단(中壇)이란 민간신앙(民間信仰)에 불교(佛敎)가 수순(隨順)해 가는 과정(科程)에서 형성(形成)되어진 것임을 살필 수 있게된다.

다음에는 하단(下壇)의 성격(性格)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단(下壇)은 일반사원(一般社員)의 상설삼단(常設三壇)에서 보면 영단(靈壇)이다. 영단(靈壇)이란 불교(佛敎)의 내세(來世)신앙(信仰)과 민간(民間)의 조영(祖靈)신앙(信仰)의 습합현상(習合現象)이라 할 수 있겠는데 즉(卽), 조영(祖靈)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발원(發願)한 공덕(功德)에 의하여 여래(如來)의 가호(加護)와 아울러 조영(祖靈)의 보살핌을 받고져 하는 신앙(信仰)형태(形態)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한편 상설단(常設壇)이 아닌 의식(儀式)의 분단법규에서 보면 하단(下壇)이 꼭 영단이 아닐 경우가 허다(許多)하다. 전술(前述) 예수제(預修濟)의 분단규식(分壇規式)에 의(依)하면 상삼단(上三壇)의 하단(下壇)은 신상단(神上壇), 중삼단(中三壇)의 하단(下壇)은 십왕단(十王壇)의 하위(下位)권속(眷屬)등(等)이며 신상단(神上壇)의 경우에는 신상작법의(神上作法儀)에 의(依)하면 다시 상중하(上中下)삼단(三壇)의 별(別)이 있으나 이는 상(上), 중단(中壇)을 다시 삼분단(三分壇)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며 결국(結局) 하단(下壇)이란 영단(靈壇)을 의미(意味)하는 것임

을 알수있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들 삼단(三壇)의 상호관계(相互關係)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예수제(預修濟)의 분단규식(分壇規式)에 의하면 삼단(三壇)은 증명단(證明壇)이며 중단(中壇)인 십왕단(十王壇)이 불사(佛事)의 중심단(中心壇)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설삼단(常設三壇)에 의하면 불단(佛壇)인 상단(上壇)이 중심(中心)단(壇)이 되며 중단(中壇)인 신상단(神上壇)은 어디까지나 護法 호도장신(護道場神)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상단(上壇)과 중단(中壇)의 관계성(關係性)은 두가지 의미(意味)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즉 전자(前者)가 토속신앙(土俗信仰)의 성격(性格)이 더 강조(強調)되어진 것이라면 후자(後者)는 토속신앙(土俗信仰)이 종속적(從屬的) 의미(意味)를 갖게 된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전자(前者)는 토속신(土俗神)을 주체(主體)로한 불교(佛敎)의 수용(受容)이라 할 수 있겠고 후자(後者)는 불교(佛敎)를 주체(主體)로한 토속신앙(土俗信仰)의 수용(受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신앙구조(信仰構造)에서 보면 이들 두 형태(形態)가 공존(共存)하고 있어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한다. 즉, 산신불공(山神佛供) 칠성불공(七星佛供) 독성불공(獨聖佛供) □왕불공등(□王佛供等)의 신앙의례(信仰儀禮)는 전자(前者)의 형태(形態)를 취(取)하고 신상작법등(神像作法等)은 후자(後者)의 형태(形態)를 취(取)한다. 이를 다시 하단(下壇)과의 관계(關係)에서 보면 전자(前者)는 불법(佛法)의 승인(承認)을 받은(불법(佛法)을 이어받은)토속(土俗)신앙(信仰)에 의거(依據)하여 조영(祖靈)을 극락왕생(極樂往生)케한 공덕(功德)에 의하여 스스로의 복덕(福德)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후자(後者)는 불법(佛法)에 귀의(歸依)한 토속신(土俗神)의 보호(保護)를 받는 불보살(佛菩薩)의 가피력(加被力)에 의(依)하여 조영(祖靈)을 극락왕생(極樂往生)케 함으로서 스스로의 복덕(福德)을 누리려하는 신앙(信仰)의 형태(形態)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4. 한국불교(韓國佛敎)의식(儀式) 분단(分壇)의 성격(性格)

불교의식(佛敎儀式)에 있어 삼단(三壇) 분단(分壇)의 형태(形態)는 여러 신앙(信仰)의 요소(要素)를 질서(秩序)지운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같은 형태(形態)는 어떤 뜻을 갖는 것일까. 즉, 여러 토속신앙(土俗信仰)의 요소(要素)를 포함한 이와같은 불교신앙의례(佛敎信仰儀禮)는 어떤 불교적(佛敎的) 의미(意味)를 갖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불교의례(佛敎儀禮)의 유형(類型)을 살펴보면 대체로 선정형의례(禪定形儀禮)와 기도형의례(祈禱形儀禮)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前者)는 일상생활(日常生活)이 곧 그대로 의례(儀禮)인데 반(反)하여 후자(後者)는 의례(儀禮)가 수행법(修行法)이란 차이(差異)점(點)이 있다.¹⁴⁾ 즉, 선정형의례(禪定形儀禮)는 일상생활(日常生活) 그대로가 의례(儀禮)이며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영위(營爲)한다는 것이 곧 의례(儀禮)의 집행(執行)이란 특성(特性)을 지녀 일상생활(日常生活)과 의례(儀禮)를 별개(別個)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별개(別個)의 의례(儀禮)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특이점(特異點)을 지닌다. 이를 선정삼미(善政三昧)의 수행(修行)에 의해 종교적(宗敎的) 의식(儀式)의 본질(本質)인 자기(自己)의 생명(生命)에 직입(直入)하여 그 실체(實體)를 파악(把握) 실증

(實證)하며 무상지견(無上知見)을 개발(開發)한다는 입장(入丈)에서 본다면 일상생활(日常生活) 그대로가 최고차(最高次)의 문화가치(文化價值)를 갖는 존귀무상(尊貴無上)의 생명(生命)이며 그 스스로의 조직(組織)이 있고 체계(體系)가 있어 그대로가 종교의례(宗教儀禮)로서 최고(最高)의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그런데 한편 이와는 달리 기도형의례(祈禱形儀禮)는 밀교형의례(密敎形儀禮)와 정토교형의례(淨土敎形儀禮)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밀교형의례(密敎形儀禮)는 통일신적(統一神的) 다신교(多神敎)의 형태(形態)를 지닌다.16) 이와같은 밀교형의례(密敎形儀禮)의 종교적(宗敎的) 의식(儀式)의 발현형식(發見形式)은 마가비노차나여래(摩訶毗盧遮那如來) 혹은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로 하고 제보살(諸菩薩) 명왕(明王) 제천선신등(諸天善神等)을 소통일(所統一)의 객체(客體)로 하는 것으로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와 소통일(所統一)을 객체(客體)와의 관계(關係)는 소통일(所統一)의 객체(客體)는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의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卽)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를 보문(普門)의 존(尊)이라 하고 소통일(所統一)의 객체(客體)를 일문(一門)의 존(尊)이라 한다면 일문(一門)의 제존(諸尊)은 보문(普門)의 존(尊)인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자성신(自省神)으로부터 중생(衆生)구제(救濟)의 대비본서(大悲本誓)에 의거(依據)한 정법륜신(正法倫神) 혹은 교명륜신(敎命倫神)을 시현(示現)하여 그 삼미(三昧)에 들게 하는 것이며 중생(衆生)의 요청(要請)을 통찰(洞察)하며 그에 응동(應同) 할 수 있는 등류(等流)의 존신(尊信)을 시현(示現)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능통일(能統一)의 보문(普門)은 일절(一切)의 덕용(德用)을 종합(綜合) 통섭(統攝)하여 이를 원구(圓具)하고 일문(一門)의 존(尊)은 보문(普門)의 존(尊)의 덕용(德用)의 수일(隨一)을 원현(圓現)하여 이를 본서(本誓)로 그기에 대응(對應)하는 중생(衆生)의 원구요청(圓具要請)을 충족(充足)하고 만족(滿足)하게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본서(本誓)란 본구(本具)의 서원(誓願)을 의미(意味)하는바 즉, 일문(一門)의 존(尊)으로부터 등류(等流)되는 본래(本來)의 의의(依依) 목적(目的)에 바탕을 둔 서원(誓願)임으로 그가 중생(衆生)의 요청(要請)에 대응(對應)하여 중생(衆生)을 충족(充足)시키는 지(智), 비력(悲力)의 삼력원구(三力原具)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以上)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비밀불교(秘密佛敎)의 의례(儀禮)는 단순한 기도형(祈禱形) 의례(儀禮)가 종교적(宗敎的) 주체(主體)의 객체(客體)에 대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위(爲)한 의례(儀禮)로 시종일관(始終一貫)하여 신인(神人) 이원(二元)의 대립(對立)의 위에 행(行)해지는데 반(反)하여 그 집행(執行)의 당초(當初)에는 이원대립(二元對立)의 위에서 행(行)해지나 그 진전(進展)에 따라 주체(主體)와 객체(客體)가 차차 그 대립(對立)의 양상(樣相)을 지양(止揚)하고 피차상즉(彼此相卽) 상입(相入)하여 주객일체(主客一體)의 경지(境地)에 몰입(沒入)하는 본지(本旨)를 목적(目的)으로 한다.

한편 기도형의례(祈禱形儀禮)의 하나인 정토교의례(淨土敎儀禮)는 밀교의례(密敎儀禮)가 통일신적(統一神的) 다신교(多神敎)의 형태(形態)를 취(取)하는데 반(反)하여 일신교적(一神敎的) 형태(形態)를 취(取)함이 특이(特異)하다. 그 의례(儀禮)의 구성(構成)은 주(主)로 예배(禮拜), 칭명염불(稱名念佛), 성문독(聖文讀?)의 삼요소(三要素)에 의해 구성(構成)되며 내용적(內容的)인 면(面)에서는 남무아미타불(南舞阿彌陀佛)의 칭념(稱念)의 일행(一行)으로 의례(儀禮)를 종합통섭(綜合統攝)하는데 특징(特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토교의례(淨土敎儀禮)는 향(香)·화(華)·등축(燈燭)을 제외(除外)하고는 구업

(口業)의 공양(供養)이라할 수 있으며 찬탈(篡奪)과 왕생정토(往生淨土)를 원구(圓具)하는 의미(意味)를 갖는 발원(發願) 즉(卽), 일종(一種)의 기도(祈禱)와의 완전(完全)한 상즉용융(相卽鎔融)된 염불(念佛)로 요약(要約)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불교의례(佛敎儀禮)의 유형(類型)중 한국불교의례(韓國佛敎儀禮)의 대타의례(對他儀禮)는 통일적(統一的) 다신교(多神敎)의 기도형의례(祈禱形儀禮)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의례(佛敎儀禮)의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의 구조(構造)는 통일신적(統一神的) 다신교(多神敎)의 밀교의례형(密敎儀禮形)의 구조(構造)와 많은 공통점(共通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밀교(密敎)의 일문(一文)의 존(尊)이 독자(獨子)의 일존(一尊)으로서 보문(普門)의 존(尊)으로 등류(等流)되는데에는 만타라(曼陀羅)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體系)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한국불교의례(韓國佛敎儀禮)의 상(上)·중(中)·하(河)의 삼단분단(三壇分壇)의 체계(體系)는 이와 같은 성격(性格)의 것으로 파악(把握)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불교의례(佛敎儀禮)는 일본(日本)의 밀교교단(密敎敎團)의 의례(儀禮)에서 보는것처럼 도상적(圖像的)인 면(面)에서의 만타라(曼陀羅)는 특별(特別)한 발전(發展)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의례절차(儀禮節次)를 만타라화(曼陀羅化)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게된다.

만타라(曼陀羅)란 불(佛)·보살(菩薩) 명왕(明王), 제천상(諸天象) 그리고 기타(其他)의 제신(諸神)들의 관계성(關契性)을 질서(秩序)지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¹⁷⁾ 이와같은 질서(秩序)는 중생(衆生)의 근기요청(根機要請)에 대응(對應)하여 중생(衆生)을 충족(充足)시키는 지(智), 비(悲), 력(力), 발현(發現)의 한 체계화(體系化)로 이해(理解)되어진 다는데 흥미(興味)를 끌게 한다.

한국불교(韓國佛敎)의식(儀式)의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도 이와같은 만타라(曼陀羅)의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한다. 즉 일문(一門)의 존(尊)인 여래(如來)의 상단(上壇)을 중심(中心)으로 내호원(內護院)으로서의 중단(中壇)과 외호원(外護院)으로서의 하단(下壇)으로 질서(秩序)지원된 만타라(曼陀羅)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한국사원(韓國寺院)의 가람배치(伽藍配置)도 결국 불교의식(佛敎儀式)의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과 관련성(關聯性)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주불(主佛)을 봉안(奉安)한 대웅전(大雄殿)을 중심(中心)으로 기타(其他)의 법당(法堂)이 중심부(中心部)를 이루고 상단(上壇) 금강문(金剛門), 사천왕문(四天王門) 명부전등(冥府殿等)의 내호원(內護院) 중단(中壇)그리고 산신각(山神閣) 칠성각등(七星閣等)이 사원(寺院) 뒤쪽의 한구석에 위치(位置)하게 됨을 외호원(外護院)의 성격(性格)을 지닌 것이 아닌가 한다(下壇). 다시 말하면 상단(上壇)과 인연(因緣)이 두터울수록 중단(中壇)의 위치(位置)를 차지하고 인연(因緣)이 멀수록 하단(下壇)의 성격(性格)을 지닌 가람배치(伽藍配置)의 구성(構成)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5. 결론(結論)

한국불교(韓國佛敎)를 신앙(信仰)의 표상(表象)인 의식(儀式) 의례적(儀禮的)인 면(面)에서 보면 무척 다양(多樣)한 신앙(信仰)의 형태(形態)를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된다. 이와같은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성격(性格)은 종파불교(宗派佛敎)를 지양(止揚)한 통불교(通佛敎)의 발전과정(發展過程)에서 형성(形成)되어진 면(面)도 살필 수 있겠으나

그보다 한국불교(韓國佛敎)의 토착화과정(土着化科程)에서 일반(一斑) 토착신앙(土着信仰)을 불교적(佛敎的)으로 수용(受容)하는 과정(科程)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한국불교(韓國佛敎)의 토착화(土着化)는 일반토속신앙(一般土俗信仰)의 대상(對象)을 무조건 배척(排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에 의하여 불법(佛法)에 귀의(歸依)케 함으로서 불교적(佛敎的) 수용(受容)을 가능(可能)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한국불교양식(韓國佛敎樣式)에 있어서의 삼단분단법(三段分壇法)은 중생(衆生)의 기근(機根)에 따른 각종(各種) 종교적(宗敎的) 요청(要請)을 질서(秩序)지운 형태(形態)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위(所謂) 밀교(密敎)의 수행(修行)인 만타라(曼陀羅)의 양식(樣式)을 지닌다는데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식분단법(儀式分壇法)의 만타라적(曼陀羅的) 의미(意味)는 한국사원(韓國寺院)의 가람형성(伽藍形成)에도 영향(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가람(伽藍)의 형성(形成)은 신앙의례(信仰儀禮)의 구조(構造)와 밀접(密接)한 관계성(關係性)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註)>

- 1)朝夕禮佛時의 中壇儀式은 대개 船苦心經을 稱하는 것을 通例로 한다.
- 2)梵音集, 一判集 釋門儀範等은 李朝中期以後의 代表的인 儀式節次를 總集成한 의례요집儀禮要集인데 이에 依하면 各種儀式에 대한 分壇法이 明記되어 있다.
- 3)釋門儀範(現用 曹溪宗儀式要集)26項 231項
- 4)山神, 七星 帝釋等에 寶한 權供儀式의 請詞에서 보면 모두『唯願承, 三寶力 降臨道場 受批奉養』의 形式을 取하고 있다. 釋門儀範 各種請詞徧 參照.
- 5)李朝中氣의 佛敎儀式要集으로 推定되어지는데 儀式文의 特徵은 各種樣式節次에 대한 註釋을 붙이고 있는데 特異性을 찾아 볼 수 있다.

上下卷으로 된 儀式解說集이다.

- 6) 釋門儀範 卷下98項
- 7) 竹中信仰 儀禮 研究への試論 88-96項 參照
- 8) 出典(共著) 韓國佛敎, 韓國佛敎樣式의 構造 參照 圓光大學校 出版局 1974
- 9) 權近 陽村集卷1 十二律寬社水陸社造成記
- 10) 燕山君日記 九年正月兵申 承政院啓
- 11) 拙稿 高慮의 信仰儀禮 崇山朴古眞傳士華甲記念 韓國佛敎(思想史) 圓光大學校
- 12) 前掲書 神象信仰條
- 13) 下壇儀式은 祖靈에게 施食儀禮를 行하는 것인데 佛敎儀式의 基本立場에서 보면 省略되어야 할 것이며 佛敎儀式이라 할 수 없는 性格의 것이나 祖上崇拜信仰을 佛敎儀式에 受容한 形態를 取한다.

前掲書 李朝佛敎儀禮의 構造

- 14) 今律洪嶽 宗教儀禮に關する考察, 日佛年報十五, 234 - 242
- 15) 拙著(共著) 韓國佛敎 50項 圓光大學校出版局
- 16) 前掲書 및 高神覺界 密敎概論 130 - 132項 參照
- 17) 高神覺界 密敎概論